

#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생태관광자원 활성화 선진지 연수

## 공무국외여행 결과 보고

### I. 연수목적

- 생태관광자원의 체계적 보존 및 활성화 성공사례 벤치마킹
- 자연자원 활용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아이디어 마련

### II. 연수개요

- 방문국가 : 캐나다
- 여행기간 : 2018.4.30.(월)~ 5.6.(일) [5박7일]
- 여행자명단 : 총15명

### III. 연수세부일정

| 일자              | 지역                   | 교통편                  | 주요일정  | 비고 |
|-----------------|----------------------|----------------------|---|----|
| 1일차<br>4.30.(월) | 인천<br>미국<br>(시애틀)    | 버스<br>항공<br>(OZ272V) | - 순천 → 인천이동(버스)<br>- 인천 → 시애틀 이동(10H)<br>- 시애틀 시내:파이크플레이스마켓(만물 시장), 스타벅스1호점<br>- 시애틀센터(문화광장)/모노레일 |    |
| 2일차<br>5.1.(화)  | 캐나다(밴쿠버)<br>캐나다(살몬암) | 버스                   | - 시애틀 → 밴쿠버 이동<br>- 밴쿠버 → 살몬암<br>- 브라이덜폭포<br>- 호프마을   |    |
| 3일차<br>5.2.(수)  | 밴프국립공원               | 버스                   | - 밴프국립공원<br>- 밴프스프링스호텔<br>- 아이스필드 파크웨이, 까마귀발빙하, 보우호수, 레이크루이즈                                      |    |

| 일자             | 지역                  | 교통편            | 주요일정   | 비고 |
|----------------|---------------------|----------------|--|----|
| 4일차<br>5.3.(목) | 밴프국립공원<br>요호국립공원    | 버스             | - 요호국립공원, 설퍼산 곤돌라탑승<br>- 코트니국립공원<br>- 밴프국립공원<br>- 보우폭포, 캔모어          |    |
| 5일차<br>5.4.(금) | 밴쿠버                 | 버스             | - 스탠리공원(도심속 거대공원)<br>:세계3대공원<br>- 플레이스견학(국제회의장)<br>:플라이오버(4차산업 4D체험) |    |
| 6일차<br>5.5.(토) | 캐나다(밴쿠버)<br>미국(시애틀) | 버스             | - 밴쿠버 → 시애틀 이동<br>- 시애틀 → 인천<br>(날짜 변경선 통과)                          |    |
| 7일차<br>5.6.(일) |                     | 항공<br>(OZ271V) | - 인천도착   |    |

#### IV. 연수내용

##### 1. 연수국 일반현황

##### 캐나다 (Canada)



- 수도 : 오타와
- 면적 : 9,984,670km<sup>2</sup>(세계2위) /10개주와 3개의자치 주로 구성
- 인구 : 3,695만명(2018월 기준)
- 언어 : 영어, 불어
- 건국일 : 1867. 7. 1.
- 1인당 GDP : 48,466\$(2018년 기준) ▷ 세계 10위
- 민족 : 영국계28%, 유프랑스계23%, 독일계3%, 기타36%

## 【 캐나다 지도 】



캐나다는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신의 축복을 받은 것 같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국가이다.

투명한 호수와 빙하로 둘러싸인 거대한 록키산맥이 뿜어 내는 매력은 누구나 한번쯤 이곳에 오고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기에 충분하다.

고집스런 프랑스계와 명예를 존중하는 영국계, 자유로운 미국계 이렇게 삼색이 미묘한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고 있다.

### 기 후

넓은 국토의 면적으로 인해 지역마다 기온차가 심하다.

겨울에는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서부 태평양 연안은 해류의 영향으로 기후가 따뜻하고 비가 많이 와서 캐나다의 위상을 상징하듯 뻗어나는 침엽수로 가득하다.

밴쿠버가 있는 브리티시 콜롬비아(British Columbia)주는 난류의 영향으로 겨울에도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별로 없으며, 10월~3월은 우기이다. 켈거리가 있는 알버타주는 연중 화창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다.

퀘벡주는 덥고 지루한 여름과 겨울의 폭설이 대조를 이룬다. 온타리오주

는 북부와 남부의 기온차가 큰 편이다.

캐나다 제일의 도시 토론토 북부는 겨울이 길고 건조하여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오타와의 남부는 여름이 길고 온화하나 호수의 영향으로 습한 편이다.

## 지형

캐나다는 한반도의 45배나 되는 국토를 가진 나라이지만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은 미국 국경을 따라 약 300km에 남북동서에 띠모양으로 뻗어 있는 지역으로 극히 한정되어 있다.

북쪽으로는 한대림과 아름다운 빙하호군, 위로는 툰드라와 극지방이 이어져 있다.

해안선이 복잡한 서쪽 태평양 연안쪽은 캐나다인 록키산맥과 맥켄지산맥이 남북으로 뻗어 있는 고산지대이다.

중앙에는 캐나다인 록키의 동쪽기슭에서 대평원이 시작되어 많은 빙하호가 산재하여 있다.

동부는 허드슨만을 에워싼 넓은 대지가 동쪽의 대서양 연안까지 구릉 지대를 이루고, 북극해로 이어지는 북부는 변화가 많은 해안선과 크고 작은 여러 섬이 있는 미개척 지역이다.

## 언어

캐나다는 각 민족들이 독자적인 언어와 문화권을 지켜가고 있는 다민족 국가이다.

전체 인구의 약 70%를 영국계와 프랑스계가 차지하고 있다.

공식언어는 영어와 프랑스어이며 주민의 81%가 프랑스계로 이루어진 퀘벡주를 제외하고는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 2. 연수내용

### 가. 미국 시애틀

공에서 짐을 찾고 시애틀 다운타운과 재래시장을 둘러보았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성공적인 재래시장

베스트셀러 '펼떡이는 물고기처럼'의 무대였던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을 돌아보고 스타벅스 1호점도 둘러보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작았지만 활기가 넘쳐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스타벅스 1호점 역시 파이크 플레이스마켓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기념품을 사고자 구경해보고자 들르는 곳인데 역시 그냥 지나치기 위해서 우리도 들렀다.



다양한 것을 아기자기한 부스로 판매하는 파이크재래시장

## 나. 밴쿠버

현대적 감각과 자연의 완벽한 조화, 밴쿠버 한국인들이 삶의 터전을 옮겨 이민을 가고 싶어하는 나라를 꼽으라면 단연 캐나다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에서 두번째로 넓은 국토를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고 너그럽게 해주는 아름다운 자연은 물론 사람들이 살기 편한 환경으로 유명하다.

넓은 국토에 걸맞게 지역별로 많은 차이가 나지만 캐나다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은 자신들이 캐나다 국민임을 자랑스러워 한다.

캐나다 제3의 도시인 밴쿠버는 캐나다 내에서 가장 살기 좋은 기후를 자랑하는 곳으로 여름 평균기온이 23~25



도로 한국과 같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지 않고 겨울에도 온난한 기후로 추위 때문에 고생할 필요가 없는 도시이다.

#### 다. 밴프(Banff)



동화속 도시

밴프(Banff)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동화속에 나오는 도시'라고 한다.

그만큼 자연과 잘 조화되는 도시설계가 인상적인 도시인 것이다.

캐나디언 록키(Canadian Rocky)의 시작점인 아름다운 도시 밴프(Banff)는 설퍼산에서 유헤온천(Upper Hot Springs)의 발견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캐나다인 록키(Canadian Rocky)의 국립공원지정으로 본격적인 관광도시로 자리잡게 된다.

'휴가를 보내기에 가장 이상적인 도시'로도 손꼽히고 있는 밴프(Banff)에서는 6,641km<sup>2</sup>에 이르는 밴프국립공원에서 대자연의 광대함을 만끽할 수 있다. 정책적으로 개발을 억제하고 있어 현대적인 매력보다 어느 곳에서도나 여유로움과 자연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보우강(River Bow)계곡에서부터 루이스호수(Lake Louise)로 또 자스퍼까지 이어지는 아이스필드 하이웨이(Icefield Highway)는 캐나다(Canada)관광의 극점이라 할 수 있다.

#### ★ 밴프 국립공원

록키 최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밴프 국립공원

지금은 전세계인들인 한번쯤 가보고 싶어하는 관광명소인 밴프 국립공원은 1883년 캐나다 퍼시픽 철도를 건설중이던 인부가 실수로 록키 산맥의

동쪽 비탈에서 미끄러지며 떨어진 온천이 흐르던 동굴의 발견에서 시작되었다. 이것은 캐나다 최초인 동시에 세계에서 세번째로 조성된 국립공원이다.

계곡과 산, 빙하, 숲, 초원, 강이 6,641평방킬로미터에 이르는 광대한 면적에 펼쳐져 있다.



### ★ 레이크 루이즈 호수

얼음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호수 레이크 루이즈

레이크 루이즈는 세계적 명성의 아름다운 경관으로 유명한 캐나다안 록키에 자리잡고 있는 수많은 호수 가운데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한 호수로 연간 2백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곳이다.



눈과 얼음이 덮힌 빅토리아 빙하산을 배경을 뒤로 블루와 그린색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레이크 루이즈의 풍경은 전문 사진작가들이 캐나다안 록키의 자연경관 중에서 최고로 꼽는다.

자연이 주는 평화로움과 고요함을 느끼며 일상에서 비켜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밴프에서 약 60km 떨어진, 밴프 국립공원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 10대 절경중에 하나이다. 얼음이 흘러 내려 고인 빙하호수로 길이가 2.4km, 수심이 70m이다.

### ★ 보우폭포(Bow Falls)



밴프 스프링스 호텔 아래에 위치해있는 보우 폭포는 높은 줄기의 폭포가 아니라 낮은 높이에서 떨어지는 폭포이다. 그러나 높이와는 달리 거센물살로 그 소리만큼은 우렁차다고 할 수 있다.

겨울기간에는 상대적으로 그 소리가 작지만 봄에는 보우 글레이셔로부터 녹은 눈이 흘러내려와 거대한 장관의 폭포의 모습을 연출한다.

## ★ 스탠리 공원(Stanley Park)

Stanley Park은 뉴욕의 센트럴 파크보다 크며, 밴쿠버 최대, 북미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의 공원으로 밴쿠버 시내에서 자동차로 10분 정도 달려가면 도착할 거리에 자리잡고 있다.



공원의 총 면적이 1,000에이커에 달하는 스탠리 공원은 원시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태평양과 접하고 있는 빼어난 경관, 80 km에 이르는 원시림 산책로가 인상적이다.

공원의 이름은 1800년대 말 캐나다의 주지사였던 스탠리 경(캐나다 하키에서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스탠리 컵(Stanley Cup)의 창시자이기도 함)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1971년 일반에게 공개된 바다산책로(Seawalk)는 밴쿠버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으로 조깅이나 산책을 즐기려는 사람들을 손짓하고 있다.

현재는 밴쿠버 수족관을 비롯한 많은 볼거리가 스탠리 공원내에 자리잡고 있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한다.

## 라. 플라이오/플레이스(국제회의장)

플레이스(국제회의장)

그야말로 대만족이었다!

너무 짧아서 아쉬울 정도..... 들어가면 처음에 삼면이 스크린으로 된 방에서 퀄리티 높은 캐나다 국뽕 영상을 본다.

우리나라나 남의 나라나 국뽕 강제 주입하는 건 똑같나 보다

좀 오그라들긴 해도 캐나다에 흥미가 있어서 재밌게 봤다.

처음에는 이게 끝인 줄 알고 내가 시발 영화 시적 전 광고를 30분 내고 보러 왔다니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짧은 영상을 보고 나서 다음 방으로 옮긴다

의자에 앉아 짐을 아래 바구니에 넣고 안전벨트를 매면 그때부터 기대가 부풀어 오른다

당연히 3D 안경을 쓰고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안경을 안 주길래 이거 뭐 설마 고글 없이 보는 VR 같은 건 아니겠지 걱정했지만 그건 기우였다.

스크린이 충분히 커서 안경을 쓰지 않아도 실물처럼 생생하다.

구름을 뚫고 가는 장면부터 시작하는데 하늘에서 미스트가 내려와 피부에 수분을 충전해줬다.

그 후에 캐나다의 유명한 지역을 여기저기 여행하는데 진짜 너무너무너무 멋있고 좋아서 심장이 떨렸다.

하늘에서 보는 광활한 바다와 그 위를 가로지르는 카약은 잊을 수가 없다. 사막(?) 위를 달리는 기마인들과 눈 덮인 곳에서 하키를 하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캐나다의 거대한 설산을 보는 게 좋았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에베레스트를 오르려고 하는지 알겠다.

아직도 그 눈 덮인 산맥들의 장엄한 광경이 잊히지가 않는다.

캐나다에 와서 직접 다 여행해 볼 게 아니라면 정말 한 번쯤 꼭 보라고 하고 싶다 돈이 아깝지 않다.



#### IV.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켈거리 타워에 올라 시내를 살펴보다가 긴 기차 행렬을 보았다. 세어보니 모두 94량의 화물칸이 연결되어 있었다. 안내하는 이의 말에 의하면 길게는 130량도 연결된다고 했다. 그 길이의 어마어마함에 놀라니 화물수송이 많을 수밖에 없는 대륙을 횡단하는 철도란다. 그 길이로 로키 산맥을 넘으려니 군데군데 기관차를 배치하고, 느리디 느린 호흡으로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아, 대륙의 광활함이여.....!!!

켈거리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올림픽파크에서 잠시 그때의 흔적들을 살폈다. 선수들의 사인 판에서 우리와 북한 선수들의 우리말을 음미하는 맛도 새롭다. 이곳에서 기억에도 생생한 영화 <쿨러닝(Cool Running)>이 제작되었



다고 한다.

실제로 영화 속의 주인공 자마이카 선수들이 독일선수들로부터 빌려 시합에 나간 연습용 볼슬레이가 전시되어 있었다. 상하의 가난한 나라에서 온 선수들이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시상대에 올라 진정한 용기와 인내가 무엇인가를 많은 이들에게 교훈적으로 시사했던 그 영화의 유머러스하고 아름다운 줄거리가 이내 머리를 맑게 한다.

○ 히말라야, 안데스 산맥과 함께 세계 3대산맥으로 일컬어지는 로키까지의 길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끝없이 보이는 설산의 전경과 무궁무진한 자원에 대한 함축적 의미가 담겨 있었다.

○ 호주와 뉴질랜드 등 영국령의 국가에서 대부분 그러하듯이 이곳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사회질서의 중심이었다. 가이드는 "이 나라에서는 남자가 동물보다 천대를 받는다"며 웃었다. 그에 의하면 캐나다의 사회적 보호의 순서는 아이, 노인, 여자, 동물, 남자 순서라는 것이다. 다소 희화화된 말이었겠지만 그 안에 분명히 약자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 넓은 세상을 보고, 듣고, 느낄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준 회사에 감사드리며, 테마연수를 통해 배운 것 들을 업무추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 하겠습니다.